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 특집]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최양업 신부의 활동

2021년 3월 1일은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가 탄생한지 2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형제와도 같았던 성인 김대건 신부와 함께 한국천주교회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최양업 신부를 기리기 위해 특집으로 신자들의 증언록에서 드러나는 최양업 신부의 활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증언록에는 최양업 신부에 대한 증언이 따로 채집되어 있지 않지만, 순교자와 증언자들의 신앙생활(성사 참여)과 관련하여 최 신부의 사목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39년과 1846년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에는 김대건, 최방제와 함께 소년 최양업이 신학생으로 뽑혀 유학을 떠난 사실이 여러 증언에서 확인됩니다. 최 신부의 사목 활동과 관련해서는, 성인 허계임(막달레나)의 며느리인 선 막달레나[1813년생]가 자신은 고양 행주 출신으로 20세에 출가하여 시어머니(허계임)에게 교리를 배우고 뒤에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그 뒤를 이어 신앙생활을 이어나면서 최양업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66년 이후 순교자를 대상으로 한 『병인치명사적』에도 최양업 신부와 관련된 증언들이 확인됩니다. 김 아우구스티노는 청주 갈매골[현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에 살던 양반 출신으로 젊어서 천주교를 배웠으나 그 형이 방해를 하므로 문경 한실[현 문경시 마성면 상대리]로 와서 최 신부에게 온 집안사람이 다 영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1866년에 잡혀 치명했습니다.

최용은 암브로시오는 본래 충청도 충주 사람으로 경상도 안동으로 이사하여 박 요한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최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상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본래 선비로서 교리에 밝아 회장이 되어 신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1866년 3월(음력)에 잡혀 서울 포도청에서 치명했습니다.

전 야고보는 어려서 눈이 멀었지만 본성이 유순하여 부모에게 순명했습니다. 충청도 청주 금봉[현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에서 살 때 나이 13세에 이르러 그 매부 최 암브로시오에게 천주교를 구전(口傳)으로 배워 식구 12명을 구전으로 가르쳐 최양업 신부에게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동정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1867년 10월(음력)에 잡혀 청주에서 치명했습니다.

김성우는 공주 반이울[반여울, 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살 때 최양업 신부의 복사로 활동했습니다. 1868년 3월에 서울 포교에게 잡혀 배교하고 풀려나왔는데 그해 5월 최 신부의 마부였던 이치교가 서울 포교를 데리고 와서 다시 잡으려 하자 이번에는 “최 신부의 복사 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서울로 잡혀가 치명했습니다.

1866년 순교자 29위[그중 24위가 시복시성됨]를 대상으로 한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성서 요한[1825년생]은 원주 태생으로 다블뤼 주교에게 입교(入敎)하고 ‘조선 최(양업) 신부’에게 세례를 받

았다고 했습니다.

1849년 말 고국에 돌아와 1861년 6월 15일까지 12년간 사목활동을 하던 최양업 신부는 많은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면서 영혼의 양식을 베풀었으며, 순교와 배교의 갈림길에서 당당히 ‘최 신부의 복사’였음을 고백한 김성우처럼 애주애인(愛主愛人)의 순교신심을 키워나가게 했습니다.

이석원(연구실장)

필리핀 롤롬보이에서 보내온 소식



필리핀 불라칸주 보카우 롤롬보이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는 성당이 있습니다. 롤롬보이는 신학생 김대건과 최양업이 마카오 유학 중에 일어난 소요를 피해 잠시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난 1월 30일에 이곳 성당이 말롤로스 교구장에 의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지’로 선포됐고, 인근에 위치한 ‘롤롬보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지 기념관’도 축복했습니다. 이곳 성지에는 수원 교구 안성에 본원을 둔 ‘성 안드레아 수녀회’의 다섯 수녀님이 계십니다. 김대건 신부님 희년을 맞아 롤롬보이 성지 기념관에서는 올 9월까지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여러 자료를 소개합니다.



작년 말 기념관 준비를 위해 수원교회사연구소에 도움을 요청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책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성지에서 간절히 찾으셨던 자료도, 연구소에서 파리의 방전교회 사료실의 협조를 받아서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롤롬보이에서 신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리부아 신부가 르그레주아 신부와 파리외방전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친 필 서한 원본 촬영본입니다.

기념관 개관 이후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성지를 방문해 김대건 신부님을 뵙고 간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서 한국의 순례자들도 롤롬보이 성지를 순례할 수 있으면 합니다.

롤롬보이 성지

주님께 영광! 필리핀에서 자랑스러운 한국 최초의 사제 성김대건 신부님의 200주년 행사가 저희 성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곳 주교님과 주교님 한분과 이곳에게신 한국 신부님두분과 수녀님들5분과 저희 성지에 전시관을 만들어 축성했고 이곳본당이 성지성당 전대사 성당으로 되었어요 한국인으로써 자랑스러운 날이었고 한국의 신부님들 수녀님들 눈시울이 뜨거웠던 날이었습니다. 올 9월까지 전시예정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전시회 방문주세요

모방 신부가

순교하기 위해 출발한 1839년 9월 6일

로마 교황청 앞으로 쓴 편지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아 김대건 신부를 신학생으로 선발하고 조선을 떠날 때까지 가르쳤던 스승이며 김대건 신부보다 7년 먼저 순교한 성 모방 신부의 서한집을 올해 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모방 신부가 순교하러 떠난 1839년 9월 6일에 로마 교황청의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 장관 앞으로 쓴 서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한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추가로 확보하여 편집 및 역주 중인 서한입니다. 1983년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서 간행한 『103위 시복시성자료 I』을 검토하던 중, 앙베르 주교를 비롯한 기해·병오 순교자들의 시복재판 문서 *Positio super Introductione Causae*(1857) 중 *Summarium*(‘요약’)의 66쪽~68쪽에 실려있는 것을 발견하여 서한집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서한은 로마로 보낸 다른 서한들처럼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서한 편집본의 아래에는 베를 주교가 1843년 5월 20일에 요동에서 덧붙인 편지가 함께 실려있고, 원본은 포교성성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 편집본이 원본과 일치한다는 포교성성 대서기관 브루티의 설명과 서명이 있습니다. 서한의 원본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방 신부는 1835년 브뤼기에르 주교의 부고를 전하는 서한을 포교성성 추기경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앙베르 주교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하에서는 기해년(1839년) 박해의 배경과 신자들의 순교 및 성사 집행, 두 선교사제의 출발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권자가 김 대신에서 조 대신으로 바뀌면서 대왕대비에게 천주교를 금압하는 칙령을 올렸고, 이를 대왕대비가 승인하며 전면적인 박해가 일어났다고 전합니다. 권득인 베드로 등 모두 8인은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 6월 24일 참수 치명하였습니다(실제로는 박아기 안나를 포함한 9인, 5월 24일 참수 치명). 그중 박희순 루치아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매질을 당했으나 다음날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합니다. 이광현 요한과 이영희 막달레나, 그리고 6인의 여성신자들은 7월 19일(실제로는 20일)에 참수 치명하였다고 전합니다. 또한 배교했다가 회개하고, 스스로 다시 관에 나아가 순교한 정국보 프로타시오, 것처럼 옥사한 장성집 요셉과 14살의 이 바르바라에 관해서도 언급합니다. 모방 신부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신자들이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가혹한 박해를 용감하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1839년의 성사 집행과 신자 수입입니다. 모방 신부는 대략 세례성사 1,200명을 비롯해 고해성사 4,500명, 예비자 600명, 신자 수 1만 명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앙베르 주교가 감옥으로 초대하였으니 이날 순교하러 출발할 것이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내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를” 청하는 기도로 서한을 끝맺었습니다.

『병인치명사적』에서 찾은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하는 9일 기도

우리 천주교에서는 구일기도를 많이 바칩니다. 특별한 지향으로 하느님께 은총을 바라며 9일간 기도하던 구일기도의 전통은 초대 그리스도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일기도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목요일부터 9일 동안, 승천하시어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도행전 말씀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 12~14 참조]

이런 구일기도의 전통을 이번에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 역주하여 간행한 『병인치명사적』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증언자 김 마르타가 자신의 본당 신부님이신 퀴를리에(Curtier, 남일량) 신부님께 보낸 편지의 기록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김 마르타의 남편 장 치릴로가 백약이 무효한 병을 얻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두 분의 수녀님께서 ‘조선 치명 탁덕(朝鮮致命鐸德) 김(金大建) 안드레아를 후보(主保)로 정하고’ 9일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에 감동한 집안 식구도 9일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장 치릴로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이에 장 치릴로는 ‘방에 탁덕(鐸德, 신부) (김대건) 안드레아 상본(像本)을 모시고 공경하며’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신 천주님께 감사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인치명사적』 역주본 3책 178~181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병자, 그리고 중대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도록 빨리 세 가지 통상 조건을 채우겠다는 지향을 지니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상본 앞에서 희년 경축에 영적으로 자신을 결합시켜 자신의 기도와 고통, 또는 힘겨운 삶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수원교구 전대사 규정과 세부 지침」 중에서

백신욱(연구원)

소식과 공지

☐ 『병인치명사적』 (대조역주본 전 6책) 주문 안내



-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QR코드로 주문하시는 분께는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 주문을 모아서 3월부터 매주 1회 일괄 배송합니다.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8호

- 2021년 3월 31일 간행 예정

▶ 정기후원(CMS) 전환 안내

매월 자동이체로 후원해주시는 후원회원님께서서는 CMS 출금 방식으로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내역(성함과 금액)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 은행에 자동이체 송금을 먼저 해지하시고, 연구소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후원금 이체 은행

농협 : 221091-55-000541 (예금주: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교회사연구소)
신협 : 131-013-870130 (예금주: 수원교회사연구소)